

동학의 접포(接包) 조직과 원불교 교화단(敎化團) 조직에 관한 비교연구
-계승과 창조의 관점에서-

박윤철

목차

1. 머리말
2. 동학의 접포 조직에 관한 고찰
 - 1) 시대적, 사상적 배경
 - 2) 유래와 성립 과정
 - 3) 구성원리와 규모
 - 4) 주요활동과 특징
 - 5) 역사적 의의
3. 원불교 교화단 조직에 관한 고찰
 - 1) 시대적, 사상적 배경
 - 2) 유래와 성립 과정
 - 3) 구성원리와 규모
 - 4) 주요활동과 특징
 - 5) 역사적 의의
4. 접포 조직과 교화단 조직의 공통점과 차이점
5. 맺음말

1. 머리말

동학(東學)은 1860년 수운 최제우 선생(이하 수운 선생으로 약칭)이 창시한 한국 근대 최초의 민중종교이다. 동학은 ‘아래로부터의 혁명’인 1894년 동학농민혁명(東學農民革命)의 사상적, 조직적 기반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신인 천도교(天道教) 역시 1919년 3.1독립운동을 주도함으로써 한국근대사에 불멸의 발자취를 남겼다. 원불교(圓佛教)는 동학, 천도교보다 후발(後發) 민중종교로 출발했으나 ‘교화, 교육, 자선(=사회복지)’이라는 고유의 3대 사업을 착실하게 전개해 옴으로써 현대한국을 대표하는 4대종교의 반열에 올라섰으며, 그것을 기반으로 세계 각지에서 활발한 종교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처럼 역사적으로 한국사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동학과 현대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를 무대로 활발한 종교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원불교에 대한 비교 연구는 대단히 흥미롭고 의미 있는 학문적 과제의 하나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동학과 원불교 양자에 대한 비교연구는 그 의미가 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원불교 쪽에서는 유병덕과 김홍철 등에 의해 1970년대부터 동학과 천도교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지만(원광대 한국종교문제연구소 연구 성과 참조), 천도교 쪽에서는 원불교에 대한 큰 관심에도 불구하고 학문적 성과를 낸 연구자가 없는 실정이다. 원불교 쪽에서 이루어진 동학과 천도교 연구라 하더라도 그 대부분이 교조(敎祖)와 교리(敎理)에 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을 뿐 의례(儀禮), 역사(歷史), 조직제도(組織制度) 등에 관한 연구는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지(主知)하듯이, 동학과 원불교는 양자 모두 한국근대에 성립된 민중종교라는 공통의 기반을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적 배경, 교리사상, 종교의례, 조직제도, 역사적 활동 등 제반 측면에서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나, 차이점도 적지 않다. 예를 들면, 동학은 접포(接包) 조직을 근간으로 교단을 형성하고 있으나, 원불교는 교화단(敎化團)을 기본조직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동학의 접포 조직은 1894년의 동학농민혁명과 1919년 3.1독립운동 과정에서 민중 동원과 교육계몽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그 역사적 의의와 가치가 이미 널리 증명된 바 있으나 현재는 그 역할이 미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비해 원불교 교화단은 동학의 접포 조직만큼의 역사적 공헌은 없으나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지를 무대로 펼치고 있는 종교 활동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과 맞물려 ‘현재진행형’ 조직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주목할 만하다.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있는 동학과 원불교의 실제, 즉 동학의 접포 조직과 원불교 교화단 조직에 대한 비교고찰을 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동학(천도교)의 접포 조직에 대해 고찰한다. 접포 조직과 관련된 문제로는 동학 창도의 시대적 배경, 접포 조직의 유래와 성립과정, 접포 조직의 구성 원리, 접포 조직의 주요활동과 특징, 역사적 의의에 대해 개관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원불교 교화단 조직에 대해 검토한다. 교화단 조직과 관련된 문제 역시 접포 조직에 관한 검토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한다. 마지막으로는 양자에 관한 고찰을 토대로 접포 조직과 교화단 조직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계승과 창조’라는 관점에서 비교 검토할 것이다. 이 같은 비교 연구는 양자의 장점을 창조적으로 종합할 수 있는 방안 모색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2. 동학 접포(接包) 조직에 관한 고찰

1) 시대적, 사상적 배경

<시대적 배경>

동학의 접포 조직에 대한 본격적 고찰에 앞서 동학 창도의 시대적 배경 및 동학의 핵심사상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먼저 시대적 배경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동학이 창도되는 19세기 중엽은 한 마디로 ‘대혼란(大混亂)’과 함께 ‘대전환(大轉換)’이 요청되고 있던 시대였다. 나라 밖으로는 ‘서세동점(西勢東漸)’으로 일컬어지는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이 조선을 위협하고 있었고, 안으로는 ‘삼정문란(三政紊亂)’으로 대표되는 지배체제의 모순이 극에 이르고 있던 시대였다.

19세기조선이 맞게 된 ‘서세동점’의 대외적 위기는 고대(古代)에서 중세(中世)로 전환하던 나말여초(羅末麗初)나, 중세 전기에서 중세 후기(=近世)로 전환하던 여말선초(麗末鮮初)의 대외적 위기와는 질적으로 차원을 달리하는 대위기였다. 종래의 대외적 위기가 동일 문화권 내에서 일어난 위기였다면, 19세기에 일어난 대외적 위기는 ‘서세(西勢)’라는 이질 문화권으로부터의 도전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19세기에 일어난 대외적 위기에 대한 대응은 종래의 대응(동일문화권 내에서의 대응)과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차원의 대응을 요구하고 있었다. 다음, ‘삼정문란’이란 조선왕조 내부의 위기는 부분적 개혁으로는 더 이상 체제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모순이 심화되어 일반 민중의 삶을 파탄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이로 인해 생존의 위기로 내몰린 민중들은 ‘삼정문란’의 폐해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것을 요구하며 전국각지에서 ‘민란’이라는 형태의 민중봉기를 계속하고 있었다. 1862년 삼남(三南) 일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임술민란’(壬戌民亂)은 그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혼란상을 온 몸으로 목격한 후 후일 동학을 창도하는 수운 최제우 선생(이하 수운이라 칭함)은 ‘우리나라에 나쁜 병이 가득하여 백성들이 하루도 편안 할 날이 없다’(我國 惡疾滿世 民無四時之安)’고 표현한 바 있다.(「포덕문」,『동경대전』 참조)

그러나, ‘서세동점’과 ‘삼정문란과 민란의 빈발’이라는 대내외적 위기 못지않게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일반 민중들의 의식(意識)이 19세기에 들어와 크게 성장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주자학을 통치이념으로 하는 조선왕조는 신분제(身分制)를 근간으로 ‘왕권(王權)과 신권(臣權)’이 지배하던 사회였다. 그러나 임진병자 양란 이후 주자학적 지배질서가 점차 힘을 잃어가는 가운데, 실학자를 중심으로 지배체제의 모순을 해결하려는 노력과 함께 신분제를 타파하려는 움직임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지배체제와 양반들을 비판하는 한글소설이 대량 유포되는가 하면, 『정감록』 등과 같은 비기도참서(秘記圖讖書)가 크게 유행하여 공공연하게 이씨왕조가 망하고 새로운 왕조가 출현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뿐만 아니라, 양반과 일반 평민이 차별 없이 한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서학(書學)은 일부 양반층을 포함하여 민중들 사이에서 급속하게 전파되고 있었다. 이런 시대상황을 배경으로 19세기 중엽 조선 민중들 사이에서는 왕권과 신권이 아닌 ‘민권’(民權)에 대한 각성이 크게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이, 동학이 창도되는 시대적 배경 속에는 ‘서세동점’이라는 대외적 위기,

주제 발표

‘삼정문란과 민란의 빈발’이라는 대내적 위기, 그리고 ‘민중의식의 성장(=민권의식의 성장)’이라는 사상적 요인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다. 동학은 바로 이 같은 ‘대혼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수운에 의해 1860년에 확립을 보게 된다. 한 마디로, 동학은 19세기 조선의 대내외적 위기를 근원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사상적, 종교적 대안으로 우리 땅에서 일어난 ‘우리 학문’이자 ‘우리 종교’라 하겠다.

<사상적 배경>

종래의 위기와는 질적으로 다른 19세기 조선의 대내외적 위기, 즉 ‘대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사상적, 종교적 대안으로 확립된 동학의 핵심사상은 무엇일까? 우선 먼저, 1860년에 등장한 동학이 당시 민중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지고 있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물음: 그러니 말씀이지, 그 때에 대신사(大神師, 수운 최제우 선생의 존칭-註)를 찾아오는 사람이 과연 많기는 많았습니까?

대답: 많고말고. 많아도 여간 많았나. 마룡동 일관이 대신사(大神師; 수운 최제우) 찾아오는 사람들로 가득 찼었다. 아침에도 찾아오고 낮에도 오고 밤에도 오고. 그래서 왔다 가는 사람, 하룻밤 자는 사람, 여러 날 체류하는 사람. 그의 부인하고 나하고는 그 손님 밥쌀 일기에 손목이 떨어져왔다. 낮에 생각할 때에는 저 사람들이 밤에는 어디서 다 잘고 했으나 밤이 되면 어떻게든지 다들 끼어 잤었다. 그 때 용담정 집은 기와집에 안방이 네 칸, 부엌이 한 칸, 사랑이 두 칸 반, 마루가 한 칸, 고간(庫間)이 한 칸이었는데, 안방 한 칸을 내놓고는 모두 다 손님의 방이 되고 말았었다. 그리고 이것을 보시오. 그 때 찾아오는 제자들이 건시(乾柿, 곶감)와 꿀 같은 것을 가지고 오는데 그 건시가 어찌나 들여 쌓였던지 그 건시를 노나(나누어) 먹고 내버린 싸리 가지가 산 같이 쌓여서 그 밑에서 나무하려 오던 일꾼들이 산으로 올라가지 않고 그 싸리 가지를 한 짐씩 가지고 가곤 했다.” (소준=김기전, 「대신사 수양녀인 팔십 노인과의 문답」, 『신인간』 16, 1927년 9월호, 16-17쪽)

위의 내용은 1860년 4월 5일에 ‘천사문답(天師問答)’을 통해 득도(得道)한 수운이 득도 직후 집안의 노비를 해방하여 수양딸로 삼았던 주씨(周氏)라는 할머니가 1927년에 증언한 내용이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곶감을 들고 찾아왔기에 지나가던 나무꾼들이 곶감 먹고 나서 버린 싸리 가지로 한 짐씩 나무를 해서 지고 갔을까? 다음 판변 측에서 기록한 내용을 보면, 주씨 할머니의 증언이 거짓이 아니라 는 것이 증명되고도 남는다.

“문경새재(鳥嶺)로부터 경주까지는 4백리 남짓 되고 고을은 10여 개 정도 되는데 날마다 동학에 대한 말이 들려오지 않은 적이 없었고, 경주 근처의 여러 고을에서는 그 말이 더욱 심하여 저자거리의 아낙네와 산골짜기 어린 아이들까지도 동학의 글을 외며 전하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말하기를 ‘위천주(為天主)’ 또는 ‘시천지(侍天地, 侍天主의 잘못)’라고 하면서 부끄러워하

지도 않고 또한 감추려고도 하지 않았사옵니다.” (「정운구서계」, 『비변사 등록』, 1863(癸亥)년 12월 20일조)

이처럼 19세기 후반 조선 민중들은 사로잡았던 동학의 핵심사상을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시천주(侍天主)’ 세 글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동학은 우리 민족 특유의 민중적인 생명사상을 확고한 중심으로 하여 그 기초 위에서 유교, 불교, 노장(老莊)사상과 도교와 기독교 등 제 사상의 핵심적인 생명사상을 통일하되, 특히 민중적인 생명사상, 민중적인 유교, 민중적 불교, 민중적 도교와 민중적 차원에서 새로 조명된 노장사상과 선사상(禪思想), 민중적 기독교사상 등의 핵심적인 생명원리를 창조적으로 통일한 보편적 생명사상”(김지하, 『남녘땅 뱃노래』, 1985, 110쪽)

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유불선을 비롯하여 민간신앙, 그리고 당시 유행하고 있던 서학마저도 망라하여 ‘민중적 기반’ 위에서 보편적 생명사상으로 새롭게 등장한 동학의 시천주 사상은 한문경전 『동경대전(東經大全)』과 한글경전 『용담유사』에 집약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일명 「동학론(東學論)」으로 불리는 『동경대전』 「논학문(論學文)」 속에 잘 나타나 있다. 「논학문」에서 수운 선생은 자신이 동학의 핵심 수행법으로 제시한 21자주문(二十一字呪文)에 대해 상세한 해설을 하고 있는데 21자주문이란 “지기금지 원위대강 시천주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至氣今至願爲大降 侍天主造化定永世不忘萬事知)”으로 이 주문은 다시 13자주문(十三字呪文; 侍天主造化定永世不忘萬事知)으로 집약되며, 그것은 다시 ‘시천주(侍天主)’ 세 글자로, 최종적으로는 ‘시(侍)’ 한 글자로 집약된다. ‘시(侍)’란 한 마디로 죽임의 위기로 내몰리는 모든 생명을 지극한 마음으로 ‘모심’을 의미한다.

동학 점포 조직은 바로 이 ‘모심’의 사상, 즉 시천주 사상 구현을 위한 방안으로 등장하는 동학 고유(固有)의 직제인 것이다.

2) 점포의 유래 및 성립과정

1860년 4월 5일 ‘천사문답(天師問答)’을 계기로 수운은 동학은 창도하기에 이르며, 이듬해 6월, 즉 1861년 6월부터 동학의 가르침을 퍼는 포덕(布德) 활동을 시작하였다. 포덕 활동을 시작하자마자 당시 지식인들과 일반 민중들은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며 수운이 거주하고 있는 경주 용담으로 몰려왔다. 그 광경은 앞에 인용한 그대로다. (소춘=김기전, 「대신사 수양녀인 팔십 노인과의 문답」, 『신인간』 16, 1927년 9월호, 16-17쪽 및 「정운구서계」, 『비변사등록』, 1863(癸亥)년 12월 20일조 참조)

‘용담에 신인이 났다’는 소문을 듣고 몰려오는 사람들 속에는 ‘서세동점’이라는 대외적 위기 속에서, ‘삼정문란’이라는 지배체제 위기 속에서, 또는 자연재해 빈발 및 전염병 유행으로 생존에 내몰리고 있던 일반 민중들은 물론이려니와, 대내외적 위기에 대해 무력하기만 한 주자학(朱子學)이란 기준 사상에 실망한 일부 양반 지식인들도 다투어 몰려왔다. 양반 지식인들도 동학에 귀의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아래

와 같은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가 바뀌어 신유년(1961)에 이르니 사방으로부터 어진 선비들이 나에게 와 문기를 ‘하늘님(天靈)이 선생께 강림하였다고 하니 어찌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대답하기를 ‘가서 다시 오지 아니함이 없는 도리를 받았나니라’(「논학문」, 『동경대전』)

이처럼 일반 민중은 물론이려니와 일부 양반 지식인들마저 다투어 동학에 뛰어들게 되자 수운은 자신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평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포덕 초기에는 경주 용담으로 찾아오는 이들을 일일이 응대하며 포덕을 할 수 있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찾아오는 이들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또 한편으로는 동학의 기본 수행인 21자주문 수행을 자의적으로 행함으로써 관변 측이나 보수 유생들로부터 불필요한 오해와 탄압을 초래할 염려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수운은 포덕 활동을 개시한 지 약 1년 반이 지난 1862년 12월 말 15개 소의 ‘접’(接)에 16명의 ‘접주’(接主)를 두는 동학 최초의 직제(職制)인 접제(接制)를 실시하기에 이른다.

그러면 이 ‘접’은 과연 어디서 유래한 것일까? 동학의 ‘접’이 등장하기 이전에도 ‘접’이란 말은 있었던 것일까? 우선 ‘접’이란 말은 아래와 같이 통일신라의 대사상가 최치원(崔致遠)의 「풍류도(風流徒)」에 다음과 같이 나오고 있다.

최치원의 난랑비서에 이르기를 “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으니 그것을 일러 풍류도라 말한다. 그 가르침의 근원은 선사(仙史)에 자세하게 갖추어져 있으니 이것은 실로 유불선 삼교를 포함하며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와 접화(接化)한다.”(崔致遠 燮郎碑序曰 国有玄妙之道曰風流 設教之源 備詳仙史 實乃包含三教 接化群生) (『삼국사기』 진홍왕 37년조)

위에 인용한 바와 같이 동학의 ‘접’은 풍류도의 ‘접화’(接化)에서 유래하였다. 즉, 동학의 ‘접’은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와 접(接)하여 그들을 감화(感化)시킨다”는 뜻을 지닌 풍류도의 ‘접화군생’에서 유래한 것이다. 물론 동학의 ‘접’ 이전에 조선시대 서당(書堂) 훈장을 일러 ‘접장’(接長)이라 부르고, 서당에서 이루어지는 학문 활동을 ‘거접’(居接)이라 불렀다든지, 보부상(褓負商)의 우두머리를 ‘접장’이라 불렀던 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동학의 ‘접’이 서당이나 보부상의 ‘접’으로부터 일정하게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동학 창도의 역사적 배경으로 보나 동학의 핵심사상인 시천주 사상에서 유추해 볼 때, 동학의 ‘접’이 서당이나 보부상으로부터 유래했다기보다는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와 접하여 그들을 감화시킨다”는 풍류도의 ‘접화군생’에서 유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음은 동학의 ‘포’(包) 조직의 유래와 그 성립과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동학의 ‘포’라는 말 역시 앞에서 설명한 최치원의 풍류도에 나오는 ‘포함삼교(包含三教)’에서 유래했다. 그러나 동학의 ‘포’ 제도는 ‘접’ 제도보다는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야 시행이 된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1862년 12월 말에 처음 시행된 동학의 ‘접’

제도는 관변 측과 보수유생 측의 탄압과 감시 속에서 때로는 위축되기도 하고 때로는 일부 접이 해체되는 위기에 직면하기도 한다. 하지만 비밀 유지에 매우 적합한 연원제(淵源制; 연원제에 대해서는 후술), 즉 인맥(人脈) 중심의 점조직 형태를 띠고 있던 덕분에 접 조직은 탄압 속에서도 급속히 늘어가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1880년 대 후반에 이르면 삼남지방의 각 군현 가운데 동학의 접 조직이 없는 고을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 수가 늘어났다. 접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연원(淵源)을 달리하는 접끼리 경쟁하거나 대립하는 현상도 발생하고, 세(勢)가 약한 접을 세가 강한 접이 휩박하거나 흡수하려는 현상도 발생했다. 또한 어떤 한 지역에서는 연원을 달리하는 복수(複數)의 접이 난립하여 관(官)의 탄압을 자초하는 현상마저 발생했다. 거기에 더하여 스승 수운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동학의 가르침을 자의적(恣意的)으로 해석하려는 움직임마저 발생했다. 이러한 제반 문제점을 일거에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바로 ‘포제’(包制)의 도입이다. ‘포제’는 교조 신원운동(教祖伸冤運動)이 활발하게 전개되던 1892-3년경에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1893년 3월 충청도 보은에서 개최된 보은집회에는 각 지방을 대표하는 다수의 ‘포’(包)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3) 구성원리와 규모

먼저 접(接)의 구성원리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접’은 우선 ‘연원제’(淵源制, 연원제를 聯臂制라고도 한다)를 기본 구성원리로 한다. 연원(淵源)이란 “선생과 제자 사이에 가르치고 배우는 계통의 맥락”(리종일, 「연원의 관계」, 『천도교회월보』 14, 1911년 9월호, 54쪽)을 뜻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동학에서는 “내게 도를 전한 이를 연원이라 하고 내께서 도를 받은 이를 연비”라 한다. (연사, 「연원문답」, 『천도교회월보』 131, 1921년 7월, 61쪽) 즉, 나에게 동학의 가르침을 전해 준 사람을 일러 ‘연원’이라 부르고, 내께서 동학의 가르침을 전해 받은 이를 일러 ‘연비’(聯臂)라 하며, 모든 연비는 다 그 연원을 ‘용담연원(龍潭淵源)’ 즉 수운을 연원으로 삼고 있다.(오지영, 「용담연원」, 『천도교회월보』 80, 1917년 3월호, 언문부 1쪽) 이처럼 ‘연원-연비’의 관계로 형성된 ‘접’ 조직은 철저한 인맥 중심의 점 조직으로써 ‘사학(邪學)’이라고 탄압 받던 ‘은도시대’(隱道時代)에 동학을 널리 전도(伝道)하는데 크게 기여하기에 이른다.

1862년 12월말에 처음으로 시행된 접 제도에 의하면, 접(接)마다 고유의 이름이 있었으며 그 이름은 편의상 해당 접내 도인(道人)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 통례(通例)였다. 경주 부서접(慶州 府西接), 상주접(尚州接), 영해접(寧海接) 등이 그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지역 이름이 붙어 있다고 해서 접 조직을 지역 조직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각 접에는 ‘접주’(接主)라는 이름의 지도자가 있었으며, ‘접주’ 아래에 접주의 업무를 보좌하고 서기(書記) 역할을 담당하는 ‘접사’(接司)가 있었다. 이를 접주와 접사는 ‘접소’(接所; 접의 본부)에 거주하면서 포덕 활동이나 수련활동을 주재(主宰)했다. ‘접소’는 대체로 접주의 집을 임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 다음 접의 규모 문제이다. ‘접’의 규모에 대해 기록한 동학 천도교 측 기록이 없어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당시 동학이 전파되는 것을 ‘우려’의 눈으로 보고 있

던 보수유생들의 기록을 빌리면 ‘접’의 규모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접’의 규모에 대해 전라도 구례에 거주하며 동학 및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견문을 『오하기문』(梧下記聞)이란 책으로 남긴 매천 황현은 ‘수십 인’이라 기록하고 있고, 경상도 예천에서 역시 동학에 대한 견문기를 남긴 나암 박주대는 ‘6-70인’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당시 동학은 가족 중 한 사람이 동학에 입도하면 가족 전체가 도인이 되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비밀을 유지하기가 어려워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처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접의 규모를 헤아릴 때는 가족 단위 또는 세대 단위로 그 규모를 헤아려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황현과 박주대의 남긴 접의 규모는 바로 세대 단위로 읽어야만 정확하다.

다음 ‘포’(包)의 구성원리와 규모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포’ 조직은 접 조직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는 동시에, 동학의 사회운동(1892-3년의 교조신원운동) 전개를 위해 등장한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인맥 중심의 접 조직은 지배층의 감시와 탄압 속에서 동학의 교세 확대에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조직이긴 했으나, 그 수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접과 접 사이의 갈등이 야기되는 등 문제점을 적지 않게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광역권역(広域圈域) 안에 있는 복수의 접을 하나의 조직으로 포괄하는 ‘포’ 제도가 절실히 요청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접 조직의 증가에 비례하여 밖으로부터 오는 감시와 탄압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도 각 접의 역량을 묶어낼 수 있는 새로운 직제 도입이 요청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급격하게 늘어난 접들의 연원 계통을 명확하게 하는 한편, 산하 도인들에 대한 교리 문답과 신앙과 수행 등을 차질 없이 지도하기 위해서도 새로운 직제 도입은 필연적이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맞추어 1892-3년의 교조신원운동기를 전후하여 ‘포’제가 공식적으로 시행되었다.(표영삼, 「접포 조직과 남북접의 실상」, 한국학논집 25, 1994, 153-154쪽) 그리하여 1893년 3월 충청도 보은에서 열린 보은집회(報恩集会)에는 충의포(忠義包), 선의포(善義包), 상공포(尚功包)를 비롯하여 청의, 수의, 광의(廣義), 흥경, 청의, 광의(光義), 경의, 함의, 죽경, 진의, 옥의, 무경, 용의, 양의, 황풍, 금의, 충암, 강경포 등 ‘포’ 단위로 결집한 동학교도들이 참가하였는데(「취어」, 1893), 그 수는 무려 2만 3천여 명에 이르렀다. (위의 자료) 이 같은 사실은 ‘포’ 조직이 ‘접’과 ‘접’을 포괄하는 동시에 사회운동 조직으로 유효하게 기능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그러면 동일한 광역권역 안에 있는 접들을 모두 포괄하는 ‘포’의 규모는 어느 정도였을까? 포의 규모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기록이 없어 단정할 수는 없으나 동학농민혁명 당시에 유생들에게 의해 기록된 자료들을 종합하면, 비교적 규모가 작은 포의 경우 수백 명, 규모가 큰 경우에는 수천 명에 이르렀다.(황현, 『오하기문』) 이 같은 포는 대부분은 2개 이상의 군현(郡縣)을 포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포가 연원제를 기본 구성원리로 하는 접 조직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한편, 포에는 포를 이끄는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를 일러 ‘대접주(大接主)’라 불렸으며, ‘대접주’ 밑에는 그를 보좌하는 여섯 명의 임직(任職)이 있었다. 이들 여섯 임직의 이름은 교장(教長), 교수(教授), 도집(都執), 집강(執綱), 대정(大正), 중정(中正)으로 이를 일러 ‘육임(六任)’이라 하였다.(「본교역사」 갑신조, 『천도교회월보』 21,

1912년 4월호, 16쪽) 이들 ‘육임’은 대접주의 지시를 받아 포의 제반 업무를 관장하였으며, 이들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포의 본부를 일러 ‘육임소(六任所)’라 부르기도 했다.

2개 이상의 군현에 산재하고 있는 여러 개의 접을 포괄해야 하는 포 조직은 그 제반 업무가 접에 비해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늘어나지 않을 수 없었다. 바로 그 같은 포 조직의 제반 업무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가 바로 위에서 언급한 ‘육임(六任)’ 제도이다. 동학 사료에 따르면, ‘육임’ 제도는 1884년경에 처음으로 구상되고(「본교역사」갑신조, 『천도교회월보』 21, 1912년 4월호, 16쪽), 1887년경에는 동학 2대 교주 해월 최시형이 거주하는 처소에 처음으로 도입되며(「해월선생문집」1887년조; 「청암 권병덕 선생 자서전」, 『한국사상』 15, 1975, 323쪽 참조), 1890년대 초에는 각 지역의 포에도 도입되어 널리 시행되었고(본교역사, 천도교회월보 23, 1912년 6월호, 18쪽), 1894년 동학농민혁명기의 농민군 조직과 농민군 자치가 이루어지는 1894년 5월 이후의 집강소 조직에도 그대로 원용(援用)되기에 이른다.

이렇게 ‘육임’ 제도를 근간으로 한 ‘포’ 조직은 접 조직이 지닌 문제점, 또는 접과 접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적절하게 해결하는 데 유용했을 뿐 아니라, 교조신원운동기 및 동학농민혁명기에는 운동조직으로써도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동학(천도교)에서는 사회운동을 위하여 도인들이 일어나는 것을 일러 ‘기포’(起包)라 하는데, 이 말은 교조신원운동기와 동학농민혁명기에 동일한 광역 권역 안에 있는 복수의 접을 포괄한 ‘포’ 조직을 중심으로 봉기한 데서 유래한 것이다.

4) 주요활동과 그 특징

그러면 동학의 접포 조직에서는 무슨 활동을 어떻게 하였으며, 그 특징적 요소는 무엇이었을까? 접포 조직의 주요 활동과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A

귀천(貴賤)이 같고 등위(等位)에 차별이 없으니 도고자(屠沽者; 백정과 술장사)들이 모이고, 남녀(男女)를 가리지 아니하고 유박(帷薄; 포교소 즉 接所를 말함)을 설치하니 흘아비 흘어미가 모이고, 재화(財貨)를 좋아하여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서로 도우니(有無相資) 가난한 자들이 기뻐하였다.(「동학배척통문」, 1863)

B

내가 입도한지 불과 며칠에 전지문지(伝之聞之)하여 동학의 바람이 사방으로 퍼지는데, 하루에 몇십 명씩 입도를 하곤 하였습니다. 마치 봄 잔디에 불붙듯이 포덕(布德)이 어찌도 잘 되는지 불과 일이(一二) 삭 안에 서산(충청도 서산) 일군이 거의 동학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 까닭은 말할 것도 없이 첫째 시운(時運)이 번복하는 까닭이요, 만민평등(万民平等)을 표방한 까닭입니다. 그래서 재래로 하층 계급에서 불평으로 지내던 가난뱅이, 상놈, 백정, 종놈 등 온갖 하

총 계급은 물밀듯이 다 들어와 버렸습니다. (중략) 하루라도 먼저 (입도)하면 하루 더 양반이요, 하루라도 뒤져 (입도)하면 하루 더 상놈이라는 생각 하에서 어디서나 닥치는 대로 입도부터 하고 보았습니다.(중략) 제일 인심을 끈 것은 커다란 주의나 목적보다도, 또는 조화(造化)나 장래 영광보다도 당장의 실익(實益) 그것이었습니다. 첫째 입도만 하면 사인여천(事人如天)이라는 주의 하에서 상하, 귀천, 남녀, 존비 할 것 없이 꼭꼭 맞절을 하며, 경어를 쓰며, 서로 존경하는 데서 모두 심열성복(心悅性服)이 되었고, 둘째 죽이고 밥이고 아침이고 저녁이고 도인(道人)이면 서로 도와주고 먹으라는 데서 모두 집안 식구 같이 일심단결이 되었습니다. 그 때야말로 참말 천국천민(天國天民)들이었지요. (홍종식, 「70년 사상의 최대 활극 동학란실화」, 『신인간』 34, 1929년 4월호, 45-46쪽)

위의 A와 B의 내용 가운데 고덕으로 처리한 내용에 나타난 접포 조직의 가장 큰 특징은 상하와 귀천, 남녀, 존비의 차별을 모두 철폐한 철저한 ‘평등공동체’였다는 점이다. 동학의 접포 조직이 철저한 ‘평등공동체’였다는 사실은 1890년대 초반 황해도에서 동학에 입도하기 위하여 상놈 출신에다 총각의 신분으로 접소를 찾아간 김구에게 양반 접주가 맞절을 한 사례(『백범일지』 참조)에서도 확인된다. 또한 접포 조직의 평등공동체적 성격은 바로의 시천주 사상을 사회화한 사인여천(事人如天) 사상에서 나오고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접포 조직은 ‘유무상자’(有無相資), 즉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서로 돋는 아주 끈끈한 ‘생활(경제)공동체’였다. 이 같은 사실은 동학 성립 초기에 동학을 배척 탄압한 보수유생들마저도 인정하고 있었다.(위의 「동학배척통문」 참조) 이러한 동학의 ‘유무상자’적 전통, 즉 생활 공동체적 전통은 수운 선생 재세 시부터 시작해서 1894년 동학농민혁명 때까지(위의 홍종식 수기 참조) 단절되는 일없이 줄기차게 실천되고 있었다.(줄고, 『최시형연구』,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120-121쪽 참조)

이 뿐만이 아니다. 동학 접포 조직의 특징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특징은 바로 ‘대혼란’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등장한 동학(東學)이란 새로운 사상, 새로운 종교의 가르침을 성심으로 배우고 익히는, 다시 말해 새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도학’(道學)을 배우고 익히는 ‘도학공동체(종교공동체)’였다는 사실이다. 이 같은 사실은 접소(접의 본부)와 육임소(포의 폰부)의 가장 중요한 활동이 바로 동학의 가르침을 강론(講論)하는 ‘개접(開接)’ 활동이었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강시원, 「최선생문집도원기서」 참조) 초기 동학에 있어 ‘개접’이란 한 마디로 동학 교리를 중심으로 한 정기수련회, 또는 정기 교리강습회를 의미했다. 수운 선생은 재세 시 수시로 ‘개접’ 활동을 통해 동학의 가르침을 강론하는 한편, 제자들과 함께 교리문답을 자주 행하곤 했다.(강시원, 「최선생문집도원기서」 참조) 이러한 전통은 해월 최시형 시대에도 그대로 계승되었으며, 해월 선생의 경우는 관의 극심한 탄압과 감시의 와중에서도 장소를 옮겨가며 핵심 제자들과 더불어 ‘개접’ 활동을 계속했다. 개접 활동은 동학농민혁명 기간 중에도 계속되었다.

끝으로 접포 조직의 중요 활동 또는 특징으로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보국안민’(輔国安民), 즉 잘못되어가는 나라를 바로잡고 도탄에서 해매는 백성들을 편안하게

만들고자 하는 ‘사회운동체’ 조직이었다는 사실이다. 이 점은 특히 ‘포’ 조직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포’ 조직은 접을 포괄하는 조직이자 교조신원운동이라는 사회운동을 위해 등장하였으며, 이후 동학의 모든 사회운동(교조신원운동, 동학농민혁명, 갑진개혁운동, 3.1독립운동)은 ‘포’ 단위로 전개되었다. 이 때문에 동학 천도교에서는 동학 도인들이 사회운동을 위하여 일어서는 것을 일러 ‘기포(起包)’라고 부르게 되었다.

5) 역사적 의의

이상으로 동학 접포 조직이 등장하게 된 시대적, 사상적 배경부터 접포 조직의 유래와 성립과정, 구성원리와 규모, 주요활동과 특징에 대해 개관해 보았다. 그렇다면 이 같은 접포 조직이 한국근현대사에 끼친 영향은 무엇이며, 그 역사적 의미는 무엇일까? 이미 설명했듯이, 접포 조직은 19세기 ‘대혼란’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사상적, 종교적 대안으로 등장한 동학(東學)의 시천주(侍天主) 사상을 배우고 익히는 동시에, 개개인이 그것을 실천하는 한편 사회화(동학에서는 輔国安民이라 표현)하기 위하여 제정된 한국근대 최초의 민중종교 동학(東學)의 독창적인 직제였다.

이 접포 조직은 동학의 시천주 사상 및 그것을 더욱 확대한 사인여천 사상을 유루 없이 실천했던 ‘평등공동체’였으며,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즉 부자와 가난한 자가 서로 돋는 ‘생활공동체’인 동시에, 동학이라는 새 시대의 도학(道學)을 성심으로 배우고 익히는 ‘도학공동체’로 기능하였다. 뿐만 아니라 동학이라는 새로운 도학이 지향하는 보국안민의 세상을 건설하기 위한 ‘운동공동체’로서도 크게 역할을 하였다.

특히 동학의 접포 조직은 수십 년에 걸친 관의 탄압과 감시 속에서도 동학의 가르침을 널리 전파하고, 그것을 사회화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민(民)의 조직’으로서 한국근대사에 불멸의 발자취를 남겼다.

3. 원불교 교화단 조직에 관한 고찰

1) 시대적, 사상적 배경

원불교의 독특한 직제(職制)인 교화단 제도에 대해 고찰하기에 앞서 먼저 그 시대적, 사상적 배경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시대적 배경>

동학이 창도되는 시기는 1860년이며 원불교가 개교(開教)하는 시기는 1916년으로 양자 사이에는 반세기 조금 넘는 56년이라는 시간차가 있다. 이러한 시간차에도 불구하고 양자가 등장하는 시대적 배경은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양자 모두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전반에 걸치는 ‘대혼란’의 시대를 배경으로 이 땅에서 등장하는 민중종교(民衆宗教)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학과 원불교가 대혼란의 시대에 이 땅에서 일어난 민중종교라는 점에서 공통되기는 하지만 차이점도 적지 않다. 차이점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의 하나는 동학이 등장하던 시대의 시대적 상황과 원불교가 등장하는 시대의 시대적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는 점이다. 즉 동학이 등장하던 19세기 중엽은 ‘서세동점’과 ‘삼정문란’, ‘민란의 빈발’, 그리고 ‘민중의식의 성장’으로 대표되는 대혼란 상황 속에서 안으로는 봉건적 지배체제를 개혁하고(반봉건), 밖으로는 외세의 위협으로부터 근대적 국민국가를 수립하기 위해(반외세) 다양한 방식의 운동과 실천이 계속되던 시대였으며, 그 같은 시대상황 속에서 동학이 일어나 ‘아래로부터의 혁명’인 동학농민혁명을 일으켰다가 끝내 실패하고 만다. 동학농민혁명 실패 이후에도 의병전쟁과 애국계몽운동 등이 이어졌지만 조선왕조는 결국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하기에 이른다.

원불교는 바로 1860년에 창도된 동학의 ‘아래로부터의 혁명’이 실패하고, 그 뒤를 이은 의병전쟁 및 애국계몽운동도 모두 실패함으로써 조선왕조가 일제 식민지로 전락한 일제강점기 초기에 개교한다. 요컨대, 원불교 개교의 시대적 배경 속에는 동학이라는 선발(先發) 민중종교의 등장과 동학의 접포 조직을 중심으로 한 민중들의 광범위한 결집, 그 결집된 역량을 토대로 동학 접포 조직이 중심이 된 ‘아래로부터의 혁명’인 1894년 동학농민혁명의 참담한 좌절, 그 결과 일제식민지로 전락해 버린 ‘어둠의 시대’라는 시대적 아픔이 깊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런 시대 상황의 차이는 당연히 원불교 사상의 형성 과정에도 깊숙한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없었다. 이하, 원불교의 개교의 사상적 배경을 개관한다.

<사상적 배경>

원불교 교조 소태산 박중빈(이하 소태산으로 약칭)은 1891년 전라남도 영광에서 태어났다. 그가 태어나 성장한 시대는 한 마디로 ‘어둠의 시대’ 그 자체였다. 즉, 밖으로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으로부터 근대 국민국가를 수립하고, 안으로는 조선왕조의 봉건적 지배체제 개혁을 위해 동학이 등장하여 수십 년의 노력 끝에 ‘아래로부터의 혁명’에 불을 지폈으나 끝내 실패로 돌아가고, 나라는 마침내 일제의 식민지가 되어 버린 시대였다. 소태산은 4세 때에 고향 땅 영광에서 동학농민혁명을 맞이하였다. 영광은 당시 동학농민군의 ‘소굴’의 하나로 꼽

힐 정도로 동학의 교세가 강력한 고을이었다. 이런 고을에서 태어나고 자란 소태산의 청소년기 사상 형성과정에 동학이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것임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소태산의 유년기 및 청소년기 일화를 담고 있는『원불교교사(圓佛教敎史)』에는 그 같은 사실이 흥미롭게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동학이라는 선발 민중종교로부터 일정하게 영향을 받으며 성장하는 소태산은 7세 때부터 깊은 호기심을 가지고 우주자연 현상 등을 탐구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한다.(원불교 정화사, 「圓佛教敎史」, 『圓佛教全書』, 圓佛教出版社, 1992, 1035-1036쪽). 그러나 소태산을 둘러싼 가정환경(경제적 기반, 신분적 기반 등)은 그의 탐구심을 충족시켜 주기에 한계가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주로 산신(山神) 도사(道師)와 같은 신비적 능력을 가진 존재와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전술한『원불교교사』에 의하면, 소태산의 그 같은 노력은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위의 책, 1037쪽) 그리하여 소태산은 결국 사색과 명상, 기도생활 등 자신의 내면적 세계로 침잠하는 일대 방향전환을 통해 1916년 4월에 ‘대각(大覺)’을 이루게 된다. 소태산의 ‘대각’은 그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 ‘대각’을 이루기 전의 소태산의 삶은 어디까지나 개인적 고난 해소에 필요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시간이었다. 그러나 ‘대각’ 이후의 소태산의 삶은 개인적 고난의 원인 해소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식민지 조선민중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시대적 고난 해소를 위한 운동의 실천 과정, 즉 공적(公的) 생애의 시작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대각’ 이후 소태산은 그의 고향 영광 길룡리를 중심으로 저축조합운동(1917), 간척지개척 운동(1918-1919), 기도결사 운동(1919)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런 운동을 통해 식민지 조선민중들을 계몽시키는 한편 그들을 결속시켜 나갔다. (참고, 「圓佛教의 民族運動에 關한 一研究」, 『韓國近代史에서 본 圓佛教』, 도서출판 원화, 1991, 29-38쪽) 그러나 이 같은 운동은 모두 영광이라는 특정 지역에 국한된 운동이었으며, 사상적 조직적 기반이 미약한 상태에서 전개된 운동이라는 점, 그리고 무단통치(武斷統治) 시대로 대변되는 일제강점기 초기에 비밀결사의 형태의 비합법적 운동으로 전개되었다고 하는 점 등 여러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소태산은 마침내 1919년 가을에 전라남도 영광에서 전라북도 부안 변산의 봉래정사(蓬萊精舍)로 입산하여 1924년 봄까지 약 5년에 걸쳐 그간의 운동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새로운 운동을 모색하기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소태산은 근대 불교계와 깊은 사상적 교류를 하면서 ‘새로운 비약’을 준비한다.

부안 변산에서 5년에 걸친 준비 결과는 1924년 불법연구회(佛法研究會)라는 새로운 공동체의 창설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소태산의 불법연구회는 무엇을 지향하는 공동체였는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원불교 교화단 제도는 바로 소태산이 설립한 불법연구회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직제로 제정되기 때문이다. 필자는 소태산이 불법연구회를 설립한 근본 목적은 ‘물질 개벽시대의 정신개벽 운동’에 있다고 보며, 그 정신개벽 운동을 위한 소태산의 모색과 실천은 불법연구회를 창설하는 1924년부터 1943년까지 조금도 단절되는 일없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고 이해하고 있다. 즉, 1916년 ‘대각’을 계기로 소태산이 일생을 걸고 구현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물질개벽 시대의 정신개벽’이었으며, 그 구체적 지향은 소태산이 생전에 남기고 간『불교정전(佛教正典)』(『불교정전』은 소태산의

주제 발표

열반 전인 1943년 3월 20일에 초판이 간행된 것으로 刊記에 나와 있으나, 공식적으로 널리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1943년 6월 소태산의 열반 이후이다) 속의 「불법연구회의 설립동기」(이 내용은 후일, 『불교정전』이 『원불교교전』으로 바뀌면서 원불교「개교의 동기」로 제명이 바뀌게 된다)에 나타나 있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그 전문을 소개한다.

現下 科學의 文明을 따라 物質을 使用하는 사람의 精神은 漸漸 衰弱하고 사람이 使用하는 物質의 勢力은 날로 隆盛하여, 衰弱한 사람의 精神을 降服받아 物質의 奴隸生活을 하게 하므로 모든 사람의 生活해 가는 것이 無知한 奴僕에게 治產의 權利를 喪失한 主人같이 되었으니, 어찌 그 生活해 가는 데에 波瀾苦海가 없으리오. 이 波瀾苦海를 벗어나서 廣大無量한 樂園의 生活을 建設하기로 하면 眞理的 宗敎의 信仰과 事實的 道德의 訓練으로써 物質을 使用하는 精神의 勢力を 擴昌하여 날로 隆盛하는 物質의 勢력을 降服받아 波瀾苦海에 奴隸 生活하는 一切生靈을 廣大無量한 樂園으로 引導하려 함이 그動機니라. (佛法研究會, 「佛法研究會 設立動機」, 『佛教正典』, 佛教時報社, 1943 參照)

2) 유래와 성립과정

앞의 제 1절에서는 교화단(教化團) 제도가 성립되는 시대적, 사상적 배경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교화단 제도는 바로 「불법연구회의 설립동기」(후일, 원불교 「개교의 동기」)구현을 위한 직제, 즉 ‘물질개벽 시대의 정신개벽운동’을 위한 직제로 구상되고 제정되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교화단(教化團)은 어디서 유래하며, 어떤 과정을 거쳐 성립되는 것일까? 먼저, 교화단이란 명칭의 유래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제 9장 단원의 첫 조직 시창 2년(1917)

대종사께서 일찍이 조단(組團) 방법을 강구하사 장차 시방세계 모든 사람의 통치교화(統治敎化)의 법을 제정하셨으니, 그 요지는 오직 한 선생의 가르침으로써 원근(遠近) 각처에 산주(散住)하는 천만(千萬) 사람을 고루 훈련하는 빠른 방법인 바, 이제 그 대략(大略)을 말하자면 건(乾) 감(坎) 간(艮) 진(震) 손(巽) 리(離) 곤(坤) 태(兌) 중앙(中央)을 응(応)하여 9인(九人)으로 1단(一團)을 삼고, 단장(團長) 1인을 가(加)하여 9인의 공부(工夫)와 사업(事業)을 지도 감독케 하며, 9단장이 구성되는 시(時)는 9단장으로 1단을 삼고 단장 1인을 가하여 9단장의 공부와 사업을 지도 감독케 하되”(송규, 「불법연구회창건사」, 『회보』 제 40호, 1937년 12월호, 47-48쪽)

위의 「불법연구회창건사」에서 소태산의 수제자 정산 송규 종사(이하 정산이라 약칭)는 ‘시방세계 모든 사람의 통치교화(統治敎化)의 법’으로 ‘9인으로 1단을 삼고 단장 1인을 가하여 9인의 공부와 사업을 지도 감독’하게 하는 10인을 1단으로 하는 조단(組團)법을 원기 2년 즉 1917년에 제정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또,

본회의 창립한 시일이 천단(淺短)하니만큼 아직 각자의 공부를 완성하여 타인

을 교양(教養)할 자격이 없고, 더욱이 회원은 원근 각처에 산주(散住)하여 있으므로 종사주(宗師主; 소태산 대종사) 단독하신 힘으로 써는 그 각지에 산주한 회원의 공부와 사업을 고루 훈련하기 어려운 지라, 고(故)로 이에 회원 9인으로 1단을 삼고 단장 1인을 가하여 단장은 종사주에게 배운 그대로 자기 아래 9인의 공부와 사업을 지도 감독케 하고(「본회 통치조단 총론」, 『불법연구회통치조단규약』, 1931 참조)

『불법연구회통치조단규약』에서는 ‘타인의 교양(教養)’, 즉 ‘종사주에게 배운 그대로 자기 아래 9인의 공부와 사업을 지도 감독케 하기’ 위하여 조단규약(組團規約)을 제정한다고 밝힌 데서 유래하고 있다.

그러나, ‘교화단’이라는 명칭을 비롯한 교화단 제도는 1917년부터 ‘완성된 형태’로 체계적으로 시행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 시기는 원불교가 아직 정식 교단으로 출범하기 이전으로 어디까지나 정식 교단 창립을 위한 모색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모색기에도 소태산은 ‘물질개벽 시대의 정신개벽 운동’을 효과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직제 구상, 즉 교화단법 제정을 위한 구상(構想)을 끊임없이 가다듬고 있었던 것은 확실하다. 그 구체적 사례의 하나가 바로 9인 제자와 더불어 1919년 봄부터 여름까지 전개한 기도결사운동이다.

소태산은 1917년 8인 제자와 함께 전개했던 저축조합운동 및 1918~1919년의 간척지개척운동에 이어, 1919년 봄에는 수제자 정산 송규를 포함한 9인 제자와 더불어 기도결사운동을 전개한 직후 자신을 포함한 10인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조직, 즉 ‘10인 1단’으로 이루어진 결사체를 구성하였는데 바로 이것이 원불교 최초의 교화단이었다. (「불법연구회창건사」 제 9장 및 12장 참조) 이처럼 이미 1917년경부터 구상되어 부분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교화단 제도가 완성된 형태를 갖춰 정식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것은 이른바 ‘교화단 교과서’로 불리는 『불법연구회통치조단규약』(仏法研究會統治組團規約)이 간행 보급된 1931년 이후의 일로 짐작된다.

교화단 제도가 정식으로 시행되기 이전에는 어떤 직제가 있었을까? 우선 먼저 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조합(組合)’이다. 주지하듯이, 소태산은 1917년 8인의 신심 깊은 제자를 선정하여 그들과 함께 영광 길룡리를 무대로 1919년에 이르기까지 조합을 결성하여 저축조합운동, 간척지개척운동(방언공사), 기도결사운동(법인성사)을 전개하였다. 이 시기의 특징은 원불교(당시는 불법연구회)가 아직 정식으로 출범하기 이전으로 일종의 ‘비밀결사 시대’였다. 이 ‘비밀결사 시대’는 1924년까지 계속되는데, 이 ‘비밀결사 시대’에는 다름 아닌 ‘조합’이란 명칭이 널리 쓰였다. 그 증거를 들어보자.

A

영광 백수 길룡

간사지 양처 방언 조합원

설시원 박중빈 이인명 박경문 김성섭 유성국 오재겸 김성구 이재퐁 박한석

대정 7년(1918) 4월 4월시

대정 8년(1919) 3월 26일 종(간척지개척 준공 기념비, 일명 제명바위 명문)

B

<본회의 유래>

대정 5년도(1916)에 불법연구회 기성조합을 설시하시니 동지자는 8-9인요, 저 축금은 7-8천원이라. 매일 조합원이 중빈(重彬) 선생의 지휘를 받아 낮에는 토지를 개척하여 생활의 근원을 삼고, 밤이 되면 불법의 질리(質理)를 연구하여 지식의 근원을 삼음으로 안락한 생활이 되어

(「본회의 유래」, 『불법연구회규약』, 1927)

위의 A와 B의 내용을 보면, ‘불법연구회’가 정식으로 출범하기 이전에는 ‘조합’이란 명칭이 널리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불법연구회 출범 이전을 ‘불법연구회 기성조합’시대라고 부르는 것이다.(「불법연구회창건사」 제 10장 참조)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교화단 제도는 ‘불법연구회 기성조합’ 시대에 구상되기 시작하여, 불법연구회가 정식으로 출범한 1924년경부터 1931년에 『불법연구회통치조단규약』이라는 ‘교화단 교과서’가 간행되기까지는 부분적으로 시행되고(『월말통신』 제 1호부터 제 4호에 나오는 「단원성적조사법」, 「단원조사법 상시」, 「농업부 기성연합단취지서 및 인재양성소 기성연합단취지서」, 「양 연합단의 진행방침 토의」 등 참조), 『불법연구회통치조단규약』 간행을 계기로 현행 교화단 제도의 원형(原形)이 일단 완성을 보기에 이른다고 볼 수 있다.

3) 구성원리와 규모

그러면, 원불교 교화단 제도는 어떤 원리에 따라 제정되는 것일까? 그 구성원리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A

이 단은 곧 시방세계를 응하여 조직된 것이니 단장은 하늘(天)을 응(應)하고, 중앙(中央)은 땅(地)을 응하였으며, 팔인 단원은 팔방(八方)을 응한 것이라, 껴서 말하면 이 단이 곧 시방을 대표하고 거두어 말하면 시방을 곧 한 몸에 합한 이치니라.(「대종경」 서품 6장)

B

대종사께서 일찍이 조단(組團) 방법을 강구하사 장차 시방세계 모든 사람의 통치교화(統治敎化)의 법을 제정하셨으니, 그 요지는 오직 한 선생의 가르침으로써 원근(遠近) 각처에 산주(散住)하는 천만(千萬) 사람을 고루 훈련하는 빠른 방법인 바, 이제 그 대략(大略)을 말하자면 건(乾) 감(坎) 간(艮) 진(震) 손(巽) 리(離) 곤(坤) 태(兌) 중앙(中央)을 응(應)하여 9인(九人)으로 1단(一團)을 삼고, 단장 1인을 가하여 9인의 공부와 사업을 지도 감독케 하며
(송규, 「불법연구회창건사」, 『회보』 제 40호, 1937년 12월호, 47-48쪽)

C

수위단회를 개회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 회를 진행할 때에 천심(天心)을

가지고 천어(天語)로써 진행하여야 할 것이니, 수위단은 곧 천지의 정기(正氣)를 응하여 조직 운영하는 것이므로 이 운영에 천심 천어가 아니면 껍질 회의니라” (「정산종사법어」, 경륜편 25장)

위의 A와 B와 C의 내용에서, 교화단은 ‘시방세계를 응하여’ 조직된 것, ‘건감간진 손이 곤태와 중앙을 응하여 9인을 1단으로 삼고 단장 1인을 가하여’ 조직된 것, 또는 ‘천지의 정기를 응하여 조직 운영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 마디로, 교화단은 우주(시방세계, 천지)의 조리(원리)에 따라 구성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소태산은 우주(시방세계, 천지)의 조리에 따라 교화단을 조직한 것일까? 필자 나름의 의견을 피력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주의 조리, 즉 원불교에서 강조하는 ‘천지팔도’(天地八道)와 같은 우주의 조리(원리), 이것은 다시 원불교의 ‘일원상 진리’라고도 할 수 있는데, 교화단의 바로 이 같은 우주의 조리=일원상의 진리를 온전히 본받아 그대로 실천하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는 뜻을 담아 제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교화단은 우주의 조리인 일원상의 진리를 온전히 체득하여 그 진리를 온전히 실현하는 교화단이 되어야 한다. 즉 천인합일(天人合一) 또는 천인일여(天人一如)의 교화단이 되어야 한다.

둘째, 우주(시방세계, 천지)의 조리는 단 한 물건도 버리거나 차별하는 일 없이 모든 만물을 다 실어 길러주되 기른다는 상(相)이 전혀 없다. 그러므로, 우주를 응하여 제정된 교화단도 우주의 조리가 그러하듯이 일체 생령을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교화’(敎化)하는 조지기 되어야 한다는 뜻이 들어 있다고 하겠다. 원불교 「개교의 동기」에서 말하듯이 교화단은 ‘파란고해(波瀾苦海)의 일체 생령’을 유루(有漏) 없이 모두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해야 할 사명을 가진 조직이 되어야 한다. 즉, 제생의세(濟生醫世)의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는 교화단이 되어야 한다.

셋째, ‘건감간진 손이 곤태 팔방과 천지’를 응하여 ‘10인 1단’으로 조직된 교화단은 단장 1인이 9인의 ‘공부와 사업’을 지도 감독하는 ‘간이한’ 조직이다. 이렇게 조직된 교화단을 토대로 다시 우주의 별자리 28宿의 이름을 따 단계별로 얼마든지 많은 교화단을 조직할 수 있으나, 그 ‘공력’은 항상 9인에게만 드리면 되는 조직이라는 점이다.(「대종경」 서품 6장) 이것은 교화단이 매우 단원들의 ‘공부와 사업’을 지도 감독하는데, 다시 말해 ‘교화’하는데 대단히 효율적인 조직이라는 사실을 강조한 내용이다. 요컨대 교화단 제도는 ‘공부와 사업’ 즉 ‘교화’의 효율성이 대단히 높은 조직인 것이다.

4) 주요활동과 특징

다음으로 교화단의 핵심적 활동은 무엇이며, 그 특징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기로 하자. 교화단의 핵심 활동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교화(敎化)’의 본래 뜻부터 알아야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원불교 ‘교화단’의 ‘교화’는 특정 종교의 교리를 일방적으로 선전하고 알리는 ‘전도’(伝道)나 ‘포교’(布教)와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 앞에서 교화단이 ‘우주의 조리(원리)에 따라 조직된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교화단이 ‘우주의 조리를 실현하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는 뜻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교화단의 ‘교화’는 바로 ‘천명지위성 솔성지위도 수도지위교(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修道之謂教)’에 나오는 바로 그 ‘교’(敎)에서 나왔다고 보는 것

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교화단이 ‘우주의 조리를 실현하는 조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바로 ‘수도’(修道)를 제대로 해야 한다. 원불교에서는 이를 일러 ‘공부’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요컨대 교화단의 핵심활동은 무엇보다도 ‘수도’ 즉 ‘**공부하는 교화단**’이어야 한다. 『월말통신』 제 1호(1928년 5월호)와 2호(1928년 6월호)에는 각각 「단원 성적조사법」, 「단원조사법 상시(詳示)」 라 하여 단장이 단원의 ‘공부’에 대해 염불좌선(정신수양), 교과연습(사리연구), 취사실행(작업취사) 세 방면에 걸쳐 갑(甲) 을(乙) 병(丙) 정(丁) 무(戊) 불(不)의 6단계로 조사하는 세부 기준에 제시되어 있다. 이것은 교화단이 해야 하는 공부가 바로 ‘삼학’(三學) 공부, 즉 삼학수행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단원의 ‘공부’를 지도 감독을 하기 위해 단장이 숙지(熟知)해야 할 상세한 세칙과 ‘공부’ 성적 조사에 필요한 양식(樣式) 등은 1931년에 간행되는 『불법연구회통치조단규약』의 「단규 세칙(團規 細則)」에 제시되어 있다.

다음으로, 원불교 교화단의 핵심 활동은 다름 아닌 ‘사업(事業)’이다. 교화단의 핵심 활동이 ‘사업’임을 보여주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A

더욱이 회원은 원근 각처에 산주(散住)하여 있으므로 종사주(宗師主; 소태산 대종사) 단독하신 힘으로써는 그 각지에 산주한 회원의 공부와 사업을 고루 훈련하기 어려운 지라, 고(故)로 이에 회원 9인으로 1단을 삼고 단장 1인을 가하여 단장은 종사주에게 배운 그대로 자기 아래 9인의 공부와 사업을 지도 감독케 하고(「본회 통치조단 총론」, 『불법연구회통치조단규약』, 1931 참조)

B

이제 그 대략(大略)을 말하자면, 건(乾)감(坎)간(艮)진(震) 손(巽)리(離)곤(坤)태(兌) 중앙(中央)을 응(應)하여 9인(九人)으로 1단(一團)을 삼고, 단장 1인을 가하여 9인의 공부와 사업을 지도 감독케 하며

(송규, 「불법연구회창건사」, 『회보』 제 40호, 1937년 12월호, 47-48쪽)

C

단원 성적조사법 표준양식

조사연월일 출석 공부성적 사업성적 의견제출(공부방면, 사업방면, 생활방면)

(『월말통신』 1호, 1928년 5월호, 13쪽)

위의 A와 B와 C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은 교화단이 ‘공부와 사업’을 위주로 하는 조직이라는 점이다. 단원이 힘써야 할 업무는 바로 ‘공부와 사업’에 주력하는 것이며, 단장이 힘써야 할 일 역시 단원의 ‘공부와 사업’을 잘 지도 감독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교화단 활동의 핵심 내용의 하나가 바로 ‘사업’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교화단의 핵심 활동의 하나인 ‘사업’은 과연 어떤 ‘사업’을 말하는 것일까?

대정 5년도(1916)에 불법연구회 기성조합을 설시하시니 동지자는 8-9인요, 저축금은 7-8천원이라. 매일 조합원이 중빈(重彬) 선생의 지휘를 받아 낮에는

토지를 개척하여 생활의 근원을 삼고, 밤이 되면 불법의 질리(質理)를 연구하여 지식의 근원을 삼음으로 안락한 생활이 되어
(「본회의 유래」, 『불법연구회규약』, 1927)

대종사 회상 창립의 준비로 저축조합을 설시하시고 단원에게 말씀하시기를,
(중략) 우리의 현재 생활이 모두 가난한 처지에 있는지라 모든 방면으로 특별한 절약과 근로가 아니면 사업의 토대를 세우기 어려운 터이니 우리는 이 조합의 모든 조항을 지성으로 실행하여(대종경 서품 7장)

대종사 길룡리 간석지 방언 일을 시작하사 이를 감역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중략) 우리가 건설할 회상은 과거에도 보지 못하였고 미래에도 보기 어려운 큰 회상이라, 그러한 회상을 건설하자면 (중략) 동과 정이 골라 맞아서 공부와 사업이 병진되게 하고(대종경 서품 8장)

새 세상의 도가에서는 영육을 쌍전해야 하겠으므로 우리 회상에서는 총지부를 막론하고 회계문서를 정비시켜 수입과 지출을 대조하게 함으로써 영과 육 두 방면에 결합됨이 없게 하였으며, 교단 조직에 공부와 사업의 등위를 같이 정하였다니라(대종경 교단품 39장)

이상의 내용은 소태산 재세 시에 교화단이 핵심적으로 추구해온 ‘사업’ 내용과 그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교화단의 ‘사업’은 과거에도 없고 미래에도 보기 어려운 큰 회상 원불교가 지향하는 ‘영육쌍전’과 ‘공부사업 병진’이라는 원융무애(円融無碍)한 大이상대(理想) 달성을 위한 한 축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구체적 내용들이 바로 저축조합, 간척지개척(토지 개척)과 같은 경제 자립 활동과 “무산자를 위한 농업부 설립” “공부인 공부하는 비용과 회원의 자녀 교육비와 본회를 창립하는비용에 충용하기 위한 저축조합부 설립”(「본회의 취지 설명」, 『불법연구회규약』, 1927년 참조) 등이었다.

셋째로 이처럼 ‘공부와 사업’ 두 방면의 활동을 핵심으로 하는 교화단의 궁극적 활동은 바로 단원 전원이 장차 단장(團長; 지도자)이 되어 자신이 거느리게 될 9인 단원의 ‘공부와 사업’을 지도 감독하는 활동을 제대로 수행하는 데 있다. 다음에 인용하는 내용을 보자.

고로 이에 회원 9인으로 1단을 삼고 단장 1인을 가하여, 단장은 종사주에게 배운 그대로 자기 아래 9인의 공부와 사업을 지도 감독케 하고, 그 아래 9인은 또 자기 단장에게서 배운 그대로 매인(每人) 하(下) 9인씩 지도 감독키 위하여 이단을 조직하려 함(「본회 통치조단 총론」, 『불법연구회통치조단규약』, 1931 참조)

위의 「본회 통치조단 총론」에서 볼 수 있듯이, 교화단의 핵심 활동은 결국 단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단장으로부터 9인을 지도할 만한 실력을 배워 갖춘 다음, ‘매인 하 9인씩 지도 감독’하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단원이 단장으로부터 배워 갖

주제 발표

추어야 할 실력을 바로 ‘공부와 사업’을 제대로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실력을 말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단장은 「최초법어」에 나오는 ‘지도인으로서 준비할 요법’ 즉 “지도받는 사람 이상의 지식을 가지며, 지도받는 사람에게 신용을 잃지 아니하며, 지도받는 사람에게 사리(私利)를 취하지 아니하며, 일을 당할 때마다 지행(知行)을 대조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즉, 탁월한 리더쉽까지 갖추어야만 단장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

5) 역사적 의의

원불교는 한국근대 최초의 민중종교인 동학이 접포 조직을 근간으로 ‘아래로부터의 혁명’인 동학농민혁명이 일으켰다가 좌절된 뒤,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로 전락한 1916년에 후발 민중종교로 등장하였다. 따라서 원불교는 동학과 동학농민혁명으로부터 일정하게 영향을 받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동학의 ‘성공과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는 가운데 종교 활동을 전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동학이 창도된 1860년부터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던 1894년, 그리고 동학이 천도교로 이름을 바꾸는 1905년 전후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전근대적 지배체제를 개혁하여 근대 국민국가를 건설하려는 자주적인 운동(동학농민혁명, 갑오개혁, 애국계몽운동, 의병전쟁, 광무개혁 등등)이 치열하게 전개되던 시대였다. 그러나 원불교가 개교하는 1916년은 그 같은 자주적인 노력이 모두 실패로 돌아가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로 전락한 뒤였다. 이 같은 시대상황을 배경으로 원불교를 개교하는 소태산의 고민과 문제의식은 남다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문제의식의 일단은 무엇이었을까? 관건으로는 첫째, 어떻게 하면 선발 민중종교 동학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을까? 둘째 동학(동학농민혁명)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 원인은 무엇이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셋째, 일제(日帝) 식민지라는 ‘엄중한’ 현실에 대한 가장 지혜로운 대응책은 무엇이었을까? 등등이었다고 생각한다.

1916년의 원불교 개교는 1860년 동학을 창도한 수운의 ‘위대한 꿈’, 즉 ‘대혼란’의 시대로 상징되는 19세기중엽의 대내외적 위기를 주체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사상적, 종교적 대안으로 등장한 동학의 비전을 ‘계승’하는 한편, 그 꿈의 좌절인 동학농민혁명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창조’로써 등장했다고 볼 수 있다. 소태산이 생전에 수운 선생을 선지자로 극찬한 사실(대종경 변의품 31, 32장), 경주 용담을 방문하여 수운 선생묘소를 참배한 일 등은 동학 ‘계승’의 측면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소태산은 동학을 단순히 ‘계승’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동학과 동학농민혁명이 실패한 근본 원인을 찾아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창조’의 측면에 심혈을 기울였다. 「불법연구회 설립동기(개교의 동기)」에서 ‘물질개벽 시대의 정신개벽 운동’을 내세우고, 그 정신개벽 운동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한 직제인 교화단 제도를 마련하여 단원 한 사람 한 사람의 ‘공부와 사업’을 권장하고, 그 ‘공부와 사업’을 다시 타인에게 권장하고 지도할 만한 역량을 갖춘 지도자 양성운동을 일생토록 전개한 것이 바로 그 창조‘의 측면이다.

4. 접포 조직과 교화단 조직의 공통점과 차이점(생략)
5. 맷음말(생략)